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무더위도 잊은 나눔의 손길

남양면 망주리 3개 마을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어깨동무봉사단이 방충망을 교체하는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9일 남양면 망주리마을에서 '제278회 어깨동무봉사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운영 20년째를 맞은 어깨동무봉사단은 복지·의료·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고흥군을 대표하는 주민 밀착형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은 망동마을을 비롯해 와야마을, 평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참여해 칼같이, 방충망 수리, 농기계 수리, 돋보기 맞춤, 이미용, 물리치료, 이동빨래방 등 30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무더진 칼을 새겨처럼 갈아주는 칼같이와 여름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충망 수리 서비스에는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농기계 수리와 돋보기 맞춤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군, 계절근로자 건강보호 총력

보성군은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8일 회천면 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보성군과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은 회천면 일대 감자 수확 농가 5곳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 얼음물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무더위 속 건강 관리를 도왔다.

특히 ▲수시로 물 마시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무더운 시간대 작업 강도 조절하기 등 여름철 농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해남시 12~18일 대한민국 근대5종 대제전 펼쳐져

대한민국 근대5종 선수들이 총집결해 기량을 겨루는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가 오는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해남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근대5종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남도근대5종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 근대5종을 대표하는 선수와 임원 등 8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는 국내 근대5종 종목의 발전과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권위 있는 전국대회로서, 전국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매년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해 오고 있는 가운데 해도 지난 4월 실업근대5종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 경기대회를 유치해 우리나라 근대5종 종목 활성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보현기자

진도소방서, 여름철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 추진

진도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진도지역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이다.

이에 진도소방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구급차 냉방장치 점검, 얼음조끼·생리식염수 등 폭염 대응 구급장비 확보, 온열질환 응급처치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낮 시간대 야외 농작업 및 어업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무더위 쉼터 이용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회진면, 모내기 현장 찾아 농업인과 소통

장흥군 회진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4일부터 지역 내 모내기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는 등 소통행정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회진면은 지역 내 주요 영농현장을 방문해 모내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영농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적기 모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농작업과 효율적인 물 관리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농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친환경 양식어업 사업 공모 선정 50억 확보



완도 양식 시스템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 생산 증대를 위해 양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첨단 친환경 양식 체계(시스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기후변화(고수온·적조 등)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 산업을 첨단 스마트 양식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자율 제어 기술 도입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고수온, 적조, 해양오염 등 외부 환경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수를 재순환하는 '친환경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RAS)'을 도입한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기반 바리류

(대왕바리) 육상 스마트 양식'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 선정으로 군은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을 적용하는 양식장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식 산업 고도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어류 폐사 문제를 해결하고 완도 수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첨단 양식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첨단 양식 인프라 조성을 통해 미래형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